길 잃은 바이킹

맷 포벡

BLIZZARD ENTERTAINMENT

시리도록 파란 브락시스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중이었다. 이 다루기 힘든 기계는 남의 집 노새처럼 고집을 부렸다. 당장 내려서 바이킹을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한 대 치는 건 보행 병기에 날개를 달아 하늘로 띄운 기술자를 위해 아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해, 신참." 스토탄드 바르그 소령의 심드렁한 목소리가 공용 통신 채널을 통해 에릭에게 전달됐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줄 알고 지원했잖아."

나머지 편대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에릭의 볼이 부끄러움에 빨갛게 물들었다. 아무도 자신의 볼을 보지 못한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그때, 에릭의 화면에 전투에 닳고 닳은 바르그의 험악한 얼굴이 나타나 에릭을 내려다 봤다. 예전에 어떤 히드라리스크가 1 미터나 되는 발톱으로 바르그의 얼굴을 그어 버렸다. 그는 복원 수술을 받지 않고 미루다, 결국 수술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입을 가로지르는 흉터는 입가를 뒤틀어 그의 얼굴에 비웃음을 영구적으로 박아 넣었고, 흉터 사이로 전투에서 잃은 치아를 대신해 박아 넣은 금속 보철물이 그대로 드러났다.

바르그의 얼굴은 에릭이 그토록 덮어 두고 싶었던 전쟁의 공포를 생생하게 상기시켰다. 그는 자치령에서 오지 근무를 하며 1 년 조금 넘게 망령(Wraith)을 조종했고, 그 시간을 너무나 사랑했다.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기체의 힘을 느끼며 은하계에서 테란을 안전하게 보호할 때, 그는 살아 있음을 느꼈다.

그는 전투 조종사로서 자신의 재능과 기술을 최적의 장소에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자치령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 말로 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 그가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병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덤이었다.

이런 생각은 그가 카이리를 만나 그녀와 사랑에 빠진 후 달라졌다. 비행을 그토록 사랑하는 그였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혼자 남겨 두는 건 견딜 수 없었다. 그가 출격할 때마다 그녀는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트렸다. 에릭은 그녀가 그런 상황을 한없이 경험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녀만 홀로 남아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상황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었다.

에릭이 전역하겠다고 하자 상급자들은 당연히 탐탁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황제가 그를 훈련시키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고 그가 그 은혜를 되갚으며 평생을 보내야 한다고 장광설을 늘어 놓았다. 비록

그 장교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었으나, 결국 에릭은 군을 떠나기로 했다. 에릭이 카이리의 임신 소식을 들은 이상, 황제 자신도 그를 설득할 순 없었을 것이다.

순환 근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에릭과 카이리는 결혼했다. 결혼 선물로 그는 전역한 뒤, 카이리와 어리고 사랑스러운 딸 시프를 행성간 수송선에 태우고 이곳 브락시스로 왔다.

외톨이 얼음 행성 브락시스는 나머지 자치령 세계와 멀리 떨어진 행성이었던 만큼, 에릭은 자신이 재입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희망했다. UNN 뉴스를 보다가 몇 번인가 거의 유혹에 무릎을 꿇을 뻔한 적도 있었지만, 매번 가까스로 우주공항으로 향하는 자신을 제지할 수 있었다.

유혹에 흔들릴 때면, 그는 자신의 일터로 향했다. 브락시스의 얼어붙은 황무지 상공을 날아 거주지와 거주지를 돌며 물품을 수송하거나 광산과 제련소 사이에 귀한 광석을 운반하는 일이었다. 보수는 좋았지만, 한 번 수송을 나가면 며칠씩 카이리와 시프를 못 보곤 했고, 그만큼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도 많아졌다.

에릭이 이 행성을 떠나자는 이야기를 꺼낸 순간, 카이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이젠 잊어버려요.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잖아요. 자기 손으로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작자와 얽힌 문제들로부터도 자유롭고, 안전하고. 우리 딸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있는 곳이잖아요. 왜 그걸 바꾸려는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에릭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여기 있으면 내가 왠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어딘가에선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데, 우린 그 역사의 역자도 못 보고 있잖아."

카이리는 머리를 저었다. "그게 당신 결혼 생활보다 중요해요? 그게 당신의 어린 딸에게 아빠가 있는 것보다 중요하냐고요? 그럼 마음대로 해요. 나도 고려해 볼 테니."

그는 돌아서려 했으나, 그녀는 그의 턱을 잡고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해 봐요. 한 번 해 보라고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부둥켜안았다. 행성을 떠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질 때까지... 그는 그렇게 한참 그녀를 안고 있어야만 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일로 돌아갔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 어차피 트럭 기사가 될 거라면 최고로 끝내주는 트럭 기사가 되기로 했다. 그는 일을 잘했고, 조직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그의 상사는 그의 거주지 근처에 두었고, 단거리 수송에만 그를 투입했다. 덕분에 에릭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더 많아졌다.

그는 평안을 얻었다. 그는 만족했다. 어쩔 땐 행복하기도 했다.

그때, 저그가 도착했다.

에릭이 행성 여기저기로 나르던 귀중한 광석이 테란뿐 아니라 저그에게도 똑같이 귀중한 자원이었던 것이다. 그 외계 종족은 경고도 없이 덮쳐 왔다. 그들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행성 표면에 내려 앉아 자신들이 원하는 걸 가져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자는 무조건 죽였다.

에릭이 가까스로 집에 도착했을 때 카이리는 이미 눈물 범벅이었다. 파란 눈의 사랑스러운 어린 딸 시프가 엄마를 달래려 애를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아빠를 너무나도 기다렸던 시프는 에릭이 문을 박차고 들어온 순간 그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겼다. 아빠의 품에서 안도감을 느낀 시프는 그제서야 엄마처럼 울음을 터트렸다.

에릭은 집에 오는 길 내내 UNN 뉴스를 들었다. 행성은 이미 저그에게 점령당한 상태라는 걸 알았다. 그가 아는 브락시스는 적어도 그랬다. 저그가 행성에 있는 테란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건 시간 문제였다. 황제가 지원 병력을 보낸다 해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거주지가 산산조각 날 건 뻔했다. 에릭, 카이리, 시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일단 행성을 떠난 뒤, 나중에 돌아왔을 때 행성이 온전하게 남아 있길 기대하는 것이었다.

집으로 연락이 왔던 건, 에릭의 가족이 대피를 준비하며 짐을 싸고 있을 때였다. 군에서 저그의 진격을 잠시나마 늦출 계획을 세웠다는 지역 모병관의 소식이었다. 운만 따른다면 브락시스의 거주민 대부분이 탈출할 때까지 저그를 잡아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치령의 그 필사적인 계획을 실행하려면 준비된 전투 조종사가 필요했다. 지금 당장.

그 소식을 들은 카이리는 지체하지 않았다. "가요." 그녀는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에릭에게 말했다. "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해요.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릴게요."

에릭은 카이리와 시프에게 긴 작별 키스를 하고는 모병관을 만나러 달려 나갔다.

몇 시간 뒤, 에릭은 바이킹 조종석에 앉아 베테랑 편대원들과 함께 그렌델 산맥 북쪽 산등성이로 날아가고 있었다. 사령부에 따르면 저그 침략군이 착륙한 지점이었다. 에릭이 마지막으로 전투기를 조종한 게 벌써 3 년 전이었다. 그는 현역 시절 그가 의존했던 근육의 기억이 바로 돌아오길 바랐다.

하지만 바이킹은 그를 거부했다. 바이킹의 조종 장치는 마치 야생마 고삐처럼 거칠게 요동쳤다. 신경써야 할 사항이 너무 많았고, 이 망할 기체에 오르기 전에 훈련할 시간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찾아 보면 망령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 무기 부사관으로부터 바이킹을 조종하라는 말을 들은 에릭의 반응이었다.

부사관은 웃음을 터트리고는 고개를 저었다. "몇 대 있긴 한데, 다 대피 작업에 투입됐어. 자네는 바르그와 함께 비행을 할 거야. 바이킹을 타고 말이지."

에릭은 망령에 앉아 너무도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망령을 자신의 팔다리처럼 조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바이킹은 뭔가가 안 맞았다. 마치 누군가 두 개의 다리와, 세 개의 팔, 그리고 원숭이 꼬리를 억지로 기체에 붙여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각 부위를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는 알 것 같았다. 진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각 부위를 잘 조율해 넘어지거나 추락하지 않고 균형을 잡을지, 감이 안 온다는 것이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편대에 속한 다른 동료들은 바이킹 비행 시간이 수백 시간까진 아니더라도 수십 시간은 되었다. 이들은 마치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함께 움직였다. 이들은 사브르를 든 펜싱 선수처럼 바이킹을 조작할 뿐 아니라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도 했다. 이들의 움직임은 끝없는 연습으로 갈고 닦은 한 편의 군무와 같았다. 모두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상황에서 툭 튀어나온 부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에릭이었다.

에릭은 시뮬레이터가 아닌 실제 바이킹을 타 본 적이 없었다. 편대원들과 함께 일해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다. 브락시스에서 전설로 회자되던 바르그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나머지 대원들에 대해선 아는 게 없었다. 이 쇠사슬에 약한 연결 고리가 있다면 바로 티가 날 것이다. 에릭은 부디 자신이 그 사슬을 끊고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주인공이 되지 않길 기도할 뿐이었다.

"이제 다 왔다, 애송이." 바르그가 에릭의 백일몽에 불쑥 끼어들었다. "후회는 이륙과 함께 끝난 거야."

"전 제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에릭이 자신이 지원한 이유를 바르그에게 설명했다. "이 바이킹에 앉아서 지키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자네는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직접 선택했어." 바르그가 말했다. "우리들보다 훨씬 낫다고. 단지 무기를 선택하지 못했을 뿐이야."

"그 기분 어떤지 알지." 에릭의 오른쪽에서 비행하던 거대한 곰사람 올라프 크래프티크의 목소리였다. "이 짐승은 이도 저도 아니야. 무장 보행 병기가 비행기로 변신을 해? 딱 봐도 뭔가 부자연스럽잖아, 안 그래?"

바르그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트렸다. "어떻게 생각하나, 스코치?"

"스코치"는 아까 격납고에서 잠깐 본 빨강 머리의 당찬 여성 조종사, 드레이크 대위의 별명이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진 못했지만, 아까 에릭이 바이킹 조종석에 오를 때 그녀가 짧게 경례를 했고, 그도 엉겁결에 답례를 했었다.

"이 기계는 재간둥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너무 거칠어서 에릭은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목을 망가뜨렸는지 궁금했다. 정상적인 목에서 그렇게 거칠고 쉰 소리가 나올 수는 없지 않은가? "제공권 장악에 지상 지원 능력까지.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요한한테 물어 봐." 밸로그 그림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 친구가 에릭이 타고 있는 기체를 지난 주까지 몰았으니까."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편대원인 밸로그는 비행 내내 에릭에게 별 말이 없었다. 그는 에릭의 존재를 증오하고, 그가 없는 게 편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에릭은 딱히 반박할 자신이 없었다.

"요한한테 무슨 일 있었나요?" 에릭이 말했다.

"이렇게 말해 두지." 밸로그가 음산하게 말했다. "요한이 여기 있었으면, 바르그는 애초에 그를 대체할 지원자를 받지 않았을 거야."

올라프가 고개를 젖히고 웃었다. "맞는 말이야!"

"요한은 훈련 중 사고사를 당했어요." 스코치가 말했다. "돌격 모드에서 제공 전투기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기체를 제어하지 못해, 바로 지상으로 고꾸라졌어요."

"생각보다 흔한 일이야." 바르그가 말했다. "바이킹 조종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 최고 중의 최고만이 할 수 있지."

밸로그가 투덜거렸다. "최고이거나, 절박하거나."

"저기요." 스코치가 말했다. "요즘 브락시스에서 실전 경험을 갖춘 예비 테란 조종사 구하기가 어디 쉬워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면, 바르그가 에릭에게 지원을 요청하지도 않았겠죠."

에릭의 심장의 툭 내려 앉았다.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죠?"

"자네가 못 할 것 같았으면 애초에 얘기도 꺼내지 않았어." 바르그가 말했다. "편대에 나쁜 조종사가 있으면, 조종사가 없느니만 못 해."

"지당하신 말씀." 밸로그가 말했다.

"전화 걸기 전에 자네 복무 기록을 살펴봤지. 예전 상관 말로는 자네가 자기가 본 최고의 조종사라고 하더군. 부대에서 최고 격추 기록을 세웠다고."

"진짜예요?" 스코치가 물었다.

"사실입니다." 에릭은 담담하게 말했다.

"뭐, 브락시스에 테란이 충분치 않았던 것, 단지 그 뿐이야." 밸로그의 투덜대는 목소리에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프로토스가 이 행성을 깨끗이 쓸어버린 이후로 말이야."

"옛날에 여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 본 적 있어요?" 스코치가 말했다. "대리석처럼 평평하고 둥글둥글했죠. 여기 저기에 산이 있었고요. 흔히 보는 행성 같았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에릭은 행성의 얼음 포면 상공을 높은 고도로 비행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브락시스를 얼어붙은 묘지라고 불렀다. 에릭은 묘지보다는 흰 도화지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에릭은 프로토스가 심판의 광선으로 얼어 붙은 행성에 있던 물이란 물을 모두 증기로 만든 이후, 행성이 새로운 형태를 찾아 가는 모습에 경탄했다. 브락시스에 재정착을 시도한 첫 테란 중 한 명이었던 보탄 씨의 말처럼, 행성 표면 대부분이 증발해 버렸지만, 그렇다고 행성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끔찍했던 정화 작업이 끝나고 프로토스가 떠나자, 행성은 다시 차가워졌고, 하늘로 증발해 버린 그 많은 물은 눈과 우박으로 변했다. 휘몰아치는 폭풍의 위력은 그 전의 정화만큼이나 무시무시했을 것이다.

광활했던 대양은 증기가 되고, 증기는 다시 비가 되어 처음 바닥을 드러냈던 땅을 다시 덮었다. 미친 듯한 날씨는 믿을 수 없이 거대한 수정 구조물을 형성했다. 지표면에서 튀어나온 수정들은 괴기스러운 예술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죽은 신의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했다.

여러 곳에서 얼음은 전보다 더 단단히 얼어붙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단단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약한 격자 형태로 얼어붙었다. 잘하면 수십 톤의 얼음을 지탱할 수도 있지만, 특정 지점에 특정 각도로 힘을 주면 구역 전체가 붕괴될 수도 있었다. 비록 이 황량한 지역에 비상 착륙할 일은 없었으나, 에릭은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가 얼음에 먹혀 버린 수송선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렇군요. 낯설긴 하지만, 아름답네요." 에릭이 말했다.

에릭은 말을 끝내고 나서야 그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깨달았다. 가족과 함께 이 행성으로 이주해 온 이후로, 이 새 보금자리에 마음을 조금씩 열고 있었던 것이다. 저그에 쫓겨 보금자리를 떠나게 된 마당에 그걸 깨달은 게 애석할 뿐이었다.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잘 해낼 거야, 애송이." 바르그가 말했다. "자, 이제 모두 주둥이 닫고 주어진 임무에 집중한다. 60 초 후에 목적 지점 도착."

바르그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에릭은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이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이었다.

"거의 다 왔다." 바르그가 말했다. "저그 감염지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착륙한 다음, 거기서부턴 걸어서 이동한다. 사령부의 계산으로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적의 공격을 받지 않고 최대한 감염지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다."

소문에 따르면 저그는 행성 반대편에 착륙했다고 한다. 현재는 예비 병력 수준이지만 곧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될 것이다. 브락시스는 워낙 큰 행성이라 두 종족이 사이 좋게 지낼 법도 하지만, 저그는 나누어 쓰는 걸 싫어했다.

자치령은 감염지에 공중 공격을 감행했으나, 테란 전투기들은 임무를 마치지 못한 채 저그에 격추되었다. 그때 사령부에서 바이킹 투입 작전을 생각해 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릭이 소집되었다.

민간인 전원을 대상으로 대피가 시작됐다. 에릭은 가족들과 함께 행성을 떠날 계획이었다. 자치령이 이미 행성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자치령이 자신을 찾으리라고는 생각 못 했다. 어쩌면 연락이 왔을 때 받지 말아야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치령에서 연락이 왔다는 걸 안 순간, 그는 자신의 전투 휴식기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시프와 카이리는 원래 계획대로 두 번째나 세 번째 대피 행렬에 합류하기로 했다. 그날 아침 그들은 에릭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에릭과 카이리는 현재 상황을 시프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날 거라고, 그리고 아빠는 금방 뒤따라가겠다고 말했을 뿐이었다.

떠나기 전, 에릭은 아내와 딸에게 키스했다.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르지만, 행여나 어린 딸이 놀랄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건 에릭 평생 가장 힘든 일이었다.

지금까지는.

"다 왔어, 에릭." 바이킹들이 드러나 있는 얼음 위로 하강을 시작했을 때 바르그가 말했다. "자네부터 지상에 착륙하는 거야. 바로 돌격 모드로 전환해!"

에릭은 날아가던 바이킹을 최대한 힘껏 젖혀 세우고는 기체의 다리를 내리는 버튼을 내리쳤다. 다른 기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기동을 하다간 중심을 잃고 고꾸라질 위험이 있다. 특히 이 정도 고도에서는 더욱 치명적이다. 급격한 정지로 인해 에릭의 몸이 요동쳤지만, 그가 튕겨나가지 않도록 조종석이 그를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제서야 그는 왜 바이킹에 망령보다 두 배나 많은 안전띠와 패드, 완충 장치가 달렸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한 모드에서 다른 모드로 전환할 때 생기는 충격은 실로 가혹했다.

바르그의 명령에 따라 에릭이 첫 번째로 착륙하기로 했다. 편대 작전에 있어서 바이킹 착륙은 그 무엇보다 까다로운 동작이었다. 만약 추락할 거라면, 다른 기체들을 덮치는 것보다 혼자 추락하는 게 나았다.

그는 브락시스의 그 숱한 얼어붙은 황무지 상공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비행했지만, 지상 1 킬로 상공의 수송선 안은 항상 안전했다. 몇몇 거주지를 빼고는 이렇게 행성 표면에 가까이 간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눈이 바이킹의 무게를 지탱해 줄지, 아니면 눈 아래로 그냥 빠져버릴지, 빠지면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눈은 수 톤에 달하는 바이킹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았지만, 다리는 0.5 미터 정도 파묻히더니 단단한 바닥에 닿았다. 바닥이 얼음인지, 바위인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인지는 에릭은 알 수 없었다. 그저 무언가가 그 자리에 있어 감사할 뿐이었다.

내려앉으면서 생긴 자욱한 흰 구름 때문에, 에릭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었다. 그가 기체를 앞으로 전진시키자, 기체는 두껍고 무거운 눈을 헤치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이킹의 다리는 가로막은 눈을 날카롭게 헤쳐 나갔지만, 그 속도는 더디게 느껴졌다.

에릭이 조종해 본 보행 로봇이라고는 수송선에서 화물을 싣고 내릴 때 종종 사용했던 민간용 보행 로봇뿐이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바르그가 에릭을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물류 센터에서 쿵쾅대며 걷는 지게차를 포함해, 보행 로봇을 경험해 본 조종사는 많지 않았다.

그는 군용 보행 로봇에 대해선 잘 몰랐기 때문에 지금 기계의 움직임이 정상인지 알 수 없었다.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이것은 바이킹의 특성인 건가, 아니면 날씨 때문인 건가? 현 상황에서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쪽이든, 참아내고 어떻게든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

에릭은 자신과 다른 동료들이 착륙하면서 일으킨 눈 구름에서 벗어나, 자리에서 멈춰 지형을 관찰했다. 꼭대기가 눈으로 덮인 산맥이 보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쪽이 서쪽이라고 표시했다. 어쩌면 그건 그냥 거대한 눈더미일지도 모른다. 현재 거리에서는 알 수 없었다.

얼음 벌판이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 있었고, 흰 눈가루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서 요란한 춤을 췄다. 주위는 허허벌판이었고 저 멀리 어둑어둑한 지평선 위로 눈을 가득 품은 폭풍우가 번개를 번뜩였다.

동쪽 하늘에서는 태양이 떠올라 끝없이 펼쳐진 구름 사이로 막 햇살을 비추고 있었다. 햇살이 양쪽으로 수 킬로 미터 이어진 산등성이를 밝게 비추자, 수백 미터 위로 솟아오른 수정 절벽이 보였다. 평소였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에 취했겠지만, 절벽에 잠복한 저그 감염지의 모습은 그의 속을 불편하게 했다.

자치령 군대에서 복무하던 시기에 그는 다른 테란 세력, 특히 반란군을 상대했다. UNN 방송을 통해 저그와 프로토스를 상대로 한 전투를 접하긴 했지만, 다른 외계 종족과의 전투에 투입된 적은 없었다.

죽은 저그를 본 적은 있지만 녹화 자료에서 본 것을 빼고는 살아 있는 저그는 처음이었다. 저그와 실제로 마주친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다.

절벽의 가장자리를 따라 수많은 구멍이 나 있었고, 그 구멍에서 벌레들이 꿈틀거리며 튀어나왔다 사라지는 모습은 어릴 적에 본 흰개미 떼를 생각나게 했다. 흰개미는 그의 가족이 살던 집을 속속들이 갉아 먹었다. 해충 박멸업자는 집을 복원할 수 없다고 했다. 유일한 방법은 집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에릭은 브락시스도 혹시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난 게 아닌지 궁금했다. 어떻게 해야 저그를 행성에서 박멸할 수 있을지는 잘 몰라도, 이렇게 절벽에 송송 구멍을 내 놓은 걸 보면, 행성 폭격 말고 다른 퇴치법은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대체 뭘 하려는 거죠?" 에릭이 말했다.

"나쁜 놈들 죽이기." 바르그가 말했다. "놈들이 보이자 마자."

에릭은 후방 카메라를 확인했고, 모두가 착륙 지점에서 벗어난 것을 확인했다. 얼음이 바이킹들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을까? 바이킹이 비행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지상을 걸을 땐 깊은 발자국을 낸다. 혹시 바이킹들이 서 있는 곳이 얼어붙은 바다 위라면, 얼음 층이 깨지고 저 아래 검은 물 속에 빠져 사라지는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터였다.

"계속 이동한다." 바르그는 얼음을 헤치고 투벅투벅 전진하기 시작했다. 지나는 자리마다 희뿌연 눈발이 날렸다. 에릭과 다른 부대원들은 그의 뒤로 신속히 전형을 갖췄고, 해당 지역의 가시 거리는 겨우 몇 미터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에릭이 말했다. 어쩌면 바르그가 큰 목소리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냥 기다릴 법도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아야 했다.

소령은 투덜거렸다. 바르그는 에릭보다 겨우 몇 발자국 앞선 상태였고, 에릭은 눈 속에서 바르그의 후방 장갑을 피하느라 애를 먹고 있었다.

"우린 놈들의 시선을 분산시킨다." 바르그가 말했다. "우리의 임무는 사령부가 나머지 아군 병력의 전열을 가다듬거나, 민간인들과 함께 꽁지를 빼기로 결정할 때까지 이 벌레들의 시선을 끄는 것이다."

"우릴 미끼로 쓰는 거군." 밸로그가 알았다는 듯이 바르그에게 투덜댔다. "우릴 저그 감염지 한가운데 던져 놓고는, 놈들이 거주지가 아닌 우리에게 덤벼들게 하는 거지."

"맞다." 바르그가 대답했다. "굳이 저 벌레들을 해치울 필요는 없다. 우리 쪽 사람들이 대피할 때까지 놈들의 시선을 끌기만 하면 돼."

"우린 어떡하고요?" 올라프가 말했다.

에릭은 저 덩치 큰 사내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게 싫었다. 에릭도 그 질문을 던지고 싶었지만, 대답이 두려웠다. 답을 아는 게 정말 더 좋은 걸까?

"어떻습니까, 바르그?" 밸로그가 말했다. "우리 정도는 희생해도 괜찮겠습니까?"

"당연하지. 희생할 수 있어. 뭐가 더 중요하겠어? 바이킹 편대 하나? 아니면 행성에 있는 나머지 테란?

"나머지 테란"에 카이리와 시프가 포함되어 있는 한, 에릭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걸었고, 바이킹은 그들을 얼음 절벽으로 점점 더 가까이 데려갔다. 휘몰아치는 눈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에릭은 얼음 절벽을 느낄 수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웠다. 하지만 행군을 멈추진 않았다.

"정지!" 바르그가 다른 대원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개틀링 포를 들면서 말했다.

에릭과 다른 동료들은 발길을 멈췄다. 발 주위의 눈 가루가 빙빙 돌며 지상으로 가라앉았다. 바이킹의 기후 제어 시스템 덕에 에릭의 조종석 유리창은 깨끗했다. 산등성이 전체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엔 훨씬 더 가까워져 있었다.

바르그가 개틀링 포로 산등성이를 가리켰다. 얼음 절벽은 점막으로 뒤덮여 있었고, 저그 일벌레들이 점막에 난 수없이 많은 구멍 사이를 꿈틀대며 오갔다. 마치 거미가 줄을 치는 것 같았다. 점막은 산등성이 대부분을 덮었고, 순백의 표면을 역겨운 회색 빛으로 물들였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산등성이 상공에서 마치 해파리처럼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었다. 에릭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HUD 는 그 생물체를 대군주로 표시하고 있었다. 대군주들 사이에는 강력한 뮤탈리스크 병력이 섞여 있었다.

"일단 지상으로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우리가 지닌 화력을 저 자식들에게 다 퍼붓는다. 바이킹은 공중 이동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상의 고정 목표물을 제대로 겨냥할 수 없다."

에릭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기술자들이 바이킹을 만들 때 아래쪽을 향하는 무기를 달아줄 수도 있지 않았나요?" 그가 조종하던 망령은 전장을 비행하며 지상과 공중 목표물을 모두 공격할 수 있었는데, 바이킹에 그런 유연성이 없다는 점은 너무 아쉬웠다.

밸로그가 에릭에게 으르렁댔다. "바이킹은 현존하는 최고의 테란 개인 전투 시스템이야. 공중에 있는 것과 싸우고 싶어? 공중으로 올라가 쏴 버려. 지상에 있는 것과 싸우고 싶어? 그럼 내려가서 땅바닥에 발 붙이고 싸워. 바이킹처럼 유연하고 위험한 무기는 없어. 이 녀석에 타고 있으면 어떤 테란 기계와 붙어도 다 박살낼 수 있어. 한 번 시험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른 기체에 올라타 도전해 보시지."

에릭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전 그냥..."

밸로그가 말을 끊었다. "네가 수송선 조종사 중 최고일지는 몰라. 하지만 여기에서는 입만 나불대는 새끼 병아리일 뿐이야. 그러니까 입 닥치고, 우릴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을 방법이나 배워."

에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르그가 다시 개틀링 포로 산등성이를 가리켰다.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 무기로 강하게 친다. 놈들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면, 우릴 상대할 지상군을 보낼 거야. 적 지상군이 도착하기 전에 공중으로 뛰어올라 전투기 모드로 전환한다."

바르그가 개틀링 포를 들어 공중에 있는 저그를 가리켰다. "공중으로 가서는 저 하늘 벌레들을 최대한 많이 잡는 거야. 먼저 저 날개가 달린 뮤탈리스크들을 집중 공격한다. 가장 위험한 녀석들이거든."

"공격하고 나서는요?" 스코치가 물었다. 에릭은 그녀가 먼저 물어봐 준 게 고마웠다.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땅에 있는 벌레들을 잡는다. 기지로 귀환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스코치가 말했다. 다른 이들도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계획은 훌륭해 보였다. 바이킹 조종 경험이 전무한 에릭에겐 계획이 단순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망령을 조종하던 당시에도, 편대장들이 일종의 치고 빠지기 전술을 구사하곤 했다. 단, 그때엔 착륙했다

이륙했다 하는 번거로움이 없었지만. 에릭은 희망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저그 침공 소식을 들은 이후로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바르그의 신호에 따라, 바이킹들은 행군을 재개했다. 소령은 저그와의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졌다고 판단하고, 다시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눈가루가 가라앉자, 산등성이의 어마어마한 크기가 드러났고, 그와 함께 희망도 빠져나갔다.

이 거리에서, 에릭은 저그 갑피의 색깔을 볼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똥갈색 표면에 피맺힌 자주색과 부자연스러운 녹색이 불거져 나왔다. 저그의 아래턱뼈가 움직이며 무언가를 씹는 모습을 보니 구역질이 나고 속이 뒤틀렸다. 그렇지만 점점 커지는 공포에 휩싸일 시간이 없었다.

"공격!" 바르그가 개틀링 포를 발사했고, 다른 바이킹들도 합류했다.

에릭도 기체의 양 어깨에 하나씩 달린 포를 들고 방아쇠를 당겼다. 금속 탄피로 이루어진 시뻘건 총알 세례가 저그의 딱딱한 껍질과, 두껍고 끈적한 점막과 그 아래 벌집이 된 얼음 위에 쏟아졌다. 바이킹의 장갑이 포에서 쏟아지는 천둥 같은 격발음으로부터 에릭의 귀를 보호해 줬지만, 개틀링 포의 끊임없는 진동이 그의 뼈에 전해졌다.

바이킹의 공격으로 절벽에 있던 저그가 짙은 자주색 죽으로 변하자, 밸로그는 기쁨의 함성을 길게 외쳤고, 스코치와 올라프도 함성에 동참했다. 바이킹의 기습은 성공이었고, 많은 저그 생명체들이 미처 도망도 못 치고 죽었다. 하지만 나머지들은 자신들이 산등성이에 뚫어 놓은 수많은 구멍으로 숨어 들어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힘내라! 놈들이 도망치고 있다!" 바르그가 말했다.

에릭의 얼굴에 씨익 웃음이 번졌다. 번지는 웃음을 막을 수 없었다. 벌레들을 잡는 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짜릿한 일이었다. 벌레를 잡음으로써 거주에 있을 아내와 딸,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안전해진다는 생각을 하니 더더욱 신이 났다.

그의 포가 벌겋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포신 끄트머리만 살짝 벌개졌는데, 포신 쪽도 점점 더 벌겋게 변했다. 외부의 차가운 기온을 생각했을 때, 탄환의 마찰로 생긴 열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좋아, 내 바이킹 자식들아!" 바르그가 말했다.

한 무리의 저그가 산등성이에 잠복하는 대신 절벽 기슭을 향해 미친 듯이 줄지어 달려왔다. 에릭은 무기를 그쪽으로 겨냥해 저그를 산산조각 냈다. 살아남은 몇몇 저그는 기지 근처의 굴을 통해 탈출했고, 에릭은 더더욱 힘을 내 저그를 쐈다. 강력한 탄환이 은신처에 숨어 있는 놈들을 향해 날아가 박혔다.

"조심해, 애송이!" 바르그가 말했다. "포신을 올려! 계속 그렇게 쐈다간, 여기 전체가 그냥… 이런, 젠장."

바르그의 말과 함께 산등성이 한쪽 면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붕괴는 에릭이 집중 사격을 하던 산등성이 아래쪽 좁은 부위에서 시작되었다. 에릭이 거대한 저그 감염지를 막 발견하여, 총알을 쏟아 붓고 있던 터였다. 아무리 총알을 퍼부어도 더 많은 생명체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이들에겐 잠복할 공간이 부족한 것 같았다.

처음 몇 미터 두께의 얼음이 무너져 내리자, 에릭은 그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모습을 드러낸 저그는 얼음 안에 똘똘 뭉쳐 있었고, 무너지는 얼음 파편과 함께 떨어져 나갔고, 이들은 마치 바퀴벌레가 빛을 피하듯이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 도망쳤다. 하지만 멀리 가진 못 했다. 나머지 얼음 벽이 그들 위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

아래쪽에 지탱해 줄 얼음이 사라지자, 얼음 벽에 금이 가고 허물어지더니 눈사태와 폭포가 합쳐진 것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에릭은 끝없이 이어지는 천둥 같은 붕괴음을 바이킹 내부에서 느낄 수 있었다. 바닥에 닿은 얼음은 산산조각 나며 하늘로 튀어 올랐다. 마치 해일이 몰려오는 것처럼 산등성이에서 거대한 눈 구름이 일었다.

"제기랄! 준비 단단히 해!" 바르그가 말했다.

에릭은 개틀링 포의 반동에 밀리지 않으려고 바이킹의 다리를 얼음에 쑤셔 박은 상태였다. 그는 몰려오는 눈사태가 더 심각해지진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눈사태가 바이킹을 강타한 순간, 그는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달았다.

그가 맞이한 눈은 그와 다른 동료 바이킹들이 걸어올 때 시야를 가리던 곱고 하얀 가루가 아니었다. 그 눈은 프로토스의 행성 정화 이후, 그 자리에서 다시 얼어붙은 단단하고 무거운 얼음 조각들이었다. 눈은 마치 전차처럼 돌진해 그를 강타하고 그를 더더욱 깊은 곳으로 파묻었다.

처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버틴 에릭은 곧 그게 아무 소용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바이킹의 개틀링 포 팔을 쳐들고, 밀려 올라오는 눈을 최선을 다해 탔다. 눈사태는 바이킹을 잡아챘고, 잠시 동안 그는 바이킹이 해일 속에서 제자리 헤엄을 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얗게 변하더니, 곧 모든 것이 검게 변했다.

눈사태가 덮쳤다는 것은 자연이 자신이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로 당신을 죽이겠다는 뜻이다. 땅에서 우르릉대는 천둥 소리가 그를 세차고 빠르게 흔들었고, 나중에는 마치 소리가 그를 삼킨 것처럼, 소리와 그가 하나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바이킹 안에서 호흡을 하는 건 문제가 없었지만, 눈사태의 힘과 속도는 조종석에 앉은 그를 사정 없이 뒤흔들었고, 그의 숨을 막히게 했다. 그는 곧 죽을 것이라 확신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빨리 끝나기를 바랐다. 그러면 순간의 공포는 끝이 나고 더는 그걸 견디지 않아도 되니.

자신의 공포를 자극제 삼아, 에릭은 바이킹을 조종해 눈사태의 표면 쪽으로 힘겹게 수영해 나갔다.

다리를 위 아래로 움직이고, 무기를 흔들어 기체의 선 자세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다. 잠시 후, 밀려오는 눈의 힘이 바이킹의 제어력을 무력화하고, 에릭의 운명 통제권을 앗아갔다. 거칠게 휩쓸려 내려가던 바이킹은 엄청난 양의 얼음과 바위, 눈 속에서 멈췄다. 굉음이 잦아들었고 그는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눈 속에 묻혔음을 깨달았다.

공황 상태의 소리가 통신 시스템을 통해 에릭에게 전해져 왔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아는 건, 자신과 함께 왔던 사람들도 큰 위험에 빠졌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보고하라!" 바르그가 말했다. 한참 동안 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끙끙대는 소리는 나중에 하고, 보고하라고!"

당면한 위험은 지나갔다. 에릭은 현 상황에 대한 새로운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와 자신을 삼키려는 것을 느꼈다. 장교의 강하고 무신경한 목소리가 마치 붙잡을 수 있는 구명줄처럼 느껴졌다. "여기 있습니다!" 에릭이 말했다.

"여기요." 올라프가 말했다.

"저도요!" 밸로그가 말했다.

나머지는 답이 없었다.

"스코치? 젠장! 스코치?" 바르그 말했다.

답이 없었다.

그때 통신 채널에서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약하지만 또렷하게 들려 왔다. "저... 아...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스코치가 보이는 사람?"

"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밸로그가 말했다. "전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전 거꾸로 처박힌 것 같습니다." 올라프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말했다.

에릭은 자신의 조종석 유리창 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둑한 회색 말고는 보이는 게 거의 없었다. 그는 상황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깊게 처박혔으면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을 테니. 무엇이라도 볼 수 있다는 건, 눈 표면에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았다는 뜻일 거야. 그는 희망했다.

"저도 안 보입니다." 에릭은 바이킹의 팔을 움직여 봤다. 그의 개틀링 포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포 주변에 있는 눈이 좀 녹지 않았을까 생각했으나, 마치 급속으로 얼린 얼음 안에 갇힌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다. "제 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바르그가 말했다.

"그렇지요." 밸로그가 말했다. "우린 스코치가 아니니까요."

"재미없어." 바르그가 잠시 뜸을 들였다. "모드 변환 장치가 작동하는 사람?"

에릭은 자신의 HUD 를 확인했다. 화면을 보니, 밝은 노랑으로 빛나는 포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부위가 녹색으로 번쩍였다. "전 작동합니다." 그가 말했다.

"저도요." 밸로그가 말했다. "제 바이킹은 다리가 부러지긴 했지만, 조종석은 괜찮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 올라프가 말했다. "조종석 상태도 나쁘진 않은데, 포를 하나 잃었습니다. 바위에 깨끗이 잘려 나갔어요."

"엔진을 가동시켜." 바르그가 말했다. "수직 이륙 제트 엔진을 가동하면 열 때문에 움직일 공간이 생길 거야."

"소령님은 어떠십니까?" 밸로그가 말했다.

바르그는 끙 하는 소리를 냈다. "아직은 팔다리 붙어 있어. 하지만 눈에 휩쓸려 거꾸로 처박혔지. 내가 엔진을 가동하면 눈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거야. 너희들 셋이 좀 도와주면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에릭이 말했다. "저희는 이미 임무를 끝마쳤으니, 시간이 충분합니다. 저희는 저그의 주의를 분산시킨 것 이상의 것을 해 냈습니다. 눈사태로 저그가 박살이 났어요.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밸로그는 날카롭고 쓴 웃음을 터트렸다. "저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먼, 안 그래?"

에릭은 눈 속에 파묻히기 전까지 이 눈사태에 대해 괘나 흥분했었지만, 밸로그의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떻게 저런 눈사태를 맞고도 살 수 있죠?"

바르그가 약한 웃음을 뱉었다. 에릭은 바르그가 자신이 밝힌 것보다 더 큰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됐다.

"저그는 잠복의 명수야, 애송이." 바르그가 말했다. "떨어지는 얼음에 정통으로 맞아 터지지 않는 이상, 녀석들은 눈 밖으로 나오는 데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그래도 몇 놈은 잡았겠죠." 밸로그가 말했다. 거칠게 말은 했지만, 에릭은 그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묻어 나오는 걸 감지했다. "안 그래요?"

"당연하지." 바르그가 말했다. "몇 놈은 잡았을 거야. 하지만 놈들 전부를? 어림도 없어. 놈들은 저 밖에 있어. 아주 화가 난 상태로."

"화가 나서 복수를 하겠죠." 올라프가 커다란 몸집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르그는 짧은 푸념만을 내뱉었다.

에릭은 최대한 빨리 자신의 바이킹을 전투기 모드로 전환했다. 그는 차례차례 진행을 했다. 그의 머리는 바르그가 비행을 하면서 반복해서 설명준 체크리스트를 더듬어 나갔다. <*모드를 전환할 때 기체가*

고정되어 있거나 주변에 움직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기체에 부하가 걸려 엔진이 폭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갔다. 그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연료 우회 공급? 확인." 그는 혼잣말로 말했다. "다리로 연결되는 동력 차단? 확인."

그는 손을 뻗어 바이킹의 팔을 날개로 변환시키는 레버를 잡았다. 레버 끝에 있는 녹색 안전 장치를 꾹 누른 뒤, 근육의 모든 힘을 실어 레버를 잡아당겼다.

아무 일도 없었다. 망할. 아무 일도 없었다.

에릭은 욕을 내뱉으며 있는 힘껏 다시 레버를 당겼다. 레버가 조금씩 움직이는 게 느껴졌으나, 이러다가 레버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그의 생각에는 바이킹의 서보가 최소 수 톤에 달하는 눈을 밀어내려고 거칠게 윙윙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꼼짝도 안 합니다." 일반 작동 절차로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못 움직이겠어." 올라프가 말했다.

"수직이착륙 제트 엔진을 가동해 봐." 바르그가 말했다. "다른 것 말고 이착륙 엔진만. 연료를 될 수 있는 한 최소로 공급하면서."

"자동 정지 회로를 끄는 건 어떨까요?" 에릭이 말했다. 회로를 끄는 결정은 신경이 쓰였다. 혹시 에릭이 실수로 기체를 망가뜨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기체 관리자가 설치해 놓은 회로였다. 하지만 지금은 위험하든 안 하든 기체로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다 시험해 봐야 했다.

"나쁠 것 없지." 바르그가 말했다. "잘못하면 기체가 폭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많으니까."

"무슨 소리지?" 스코치가 말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스코치! 힘을 내." 바르그가 말했다.

"무언가... 밖에 무언가가 있어요." 스코치의 고통스러운 목소리에 공포가 스며들었다. "제 기체를 긁는 소리예요."

"저그야!" 바르그가 말했다. "움직여, 스코치! 뭔가 해 봐!"

통신 장치에서 소름끼치게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다. 에릭은 그게 누가 내는 소리인지 확실히 알았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젠장." 밸로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누그러져 있어, 에릭이 신경을 집중해야 겨우 들을 수 있었다. "놈들이 스코치를 찾았어."

통신 장치에서 비명이 튀어나와 에릭의 조종석을 가득 메웠다. "저리 가!" 스코치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빨 부딪히는 소리, 갉아 먹는 소리, 으깨는 소리가 한꺼번에 들렸다. 에릭은 진저리를 쳤다.

"안 돼! 안 돼!" 무언가 액체가 흐르는 듯한 끔찍한 소리, 너무나 인간적인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다.

에릭은 저그를 향해 분노의 소리를 외치고 싶었다. 그는 스코치를 잘 알진 못했다. 오늘 빼고는 전에 같이 일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죽인 망할 생명체들을 한 놈도 남김 없이 박살내고 싶었다. 대신, 그는 자동 정지 회로가 포함된 안전 프로토콜을 생략하고 수직이착륙 제트 엔진을 가동했다. 엔진 살아나는 소리가 들렸다. 스코치를 구하기엔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목숨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제발, 제발!" 그가 말했다.

그는 바이킹의 다리를 움직이려다가 다리 주변에 공간이 좀 생겼음을 알았다. 아마 눈이 뜨거운 증기로 증발했을 것이다. 지금 엔진을 멈추면 다리 주변의 물이 순식간에 다시 얼어붙어 브락시스의 얼음 속에 더 꽁꽁 갇힐 수밖에 없음을 에릭은 알았다.

그가 수직이착륙 제트 엔진에 연료를 더 투입하자, 그의 보호구가 머리 끝에서 발 끝까지 흔들렸다. 곧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전에 바이킹이 박살 나지 않길 바랄 뿐이었다. 제트 엔진을 너무 혹사시키면 오작동하여 저그가 도착하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빨리 끝날 수는 있을 터였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에릭은 아직 포기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그는 수직이착륙 엔진을 다시 가동했고, 이번에는 무언가 깨지는 엄청난 소리가 들렸다.

에릭의 앞에 햇빛이 쏟아졌고, 그는 너무 밝아 앞을 볼 수 없었다.

수직이착륙 엔진 아래에 있던 눈은 녹아 증기가 되었고, 그의 바이킹 주위에 쌓인 압력은 어딘가 탈출구를 찾아야 했다. 분출된 증기는 기체를 폭발시키지 않고, 에릭의 기체 위에 쌓여 있던 눈얼음 더미 사이에서 약한 지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그것을 날려 버렸다.

"에릭의 기체가 폭발한 소리 같은데." 올라프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저그에게 잡아 먹히는 것보단 낫지." 밸로그가 말했다.

에릭은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바이킹을 공중으로 올려 놓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좀 더 합리적인 기체를 조종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서 있다가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바르그 같은 전문가도 중심을 잃지 않고 깊은 구멍 속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에릭은 조종간과 씨름을 하며 바이킹을 공중으로 날려 안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작을 했다. 구멍에서는 충분히 빠른 속도로 나왔지만,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탈출했기 때문에 얼음 쪽으로 다시 미끄러졌다.

그는 수직 제트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하고, 마치 회오리 속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균형을 잡으려 했다.

결국 그는 해냈다. 잠시 후, 나머지 전환 과정을 담당하는 버튼을 눌렀다. 기체의 다리가 접혀 들어가고 어깨에서 날개가 펼쳐져 나오면서, 공중에서 머물 수 있는 양력을 얻을 수 있었다.

"나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밸로그는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외쳤고, 바르그도 뒤따랐다.

"잘했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 올라프가 말했다.

"잠시만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번 볼게요." 에릭이 말했다.

그는 기체의 후방 제트 엔진을 가동하려다가 멈췄다. 그 엔진을 가동하면, 완전히 공중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바이킹의 관성 때문에 돌아와 다른 이들을 도울 순 없을 것이었다. 물론 바이킹을 얼음 위에 착륙시켰다간 저그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그는 동료를 눈 속에서 끄집어내야만 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눈사태에 휘말려 어찔어찔하기도 했고, 그 와중에 센서가 대부분 파손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었다. 다른 조종사들이 갇혀 있는 곳은 더더욱 알 수 없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가 말했다. "혹시 플레어 같은 걸 발사할 수 있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에릭 전방 10 미터 떨어진 곳 지하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깜빡이는 게 보였다.

"뭔가 보여?" 올라프가 말했다.

"헤드라이트 좋은데요. 그리로 갈게요." 에릭이 말했다.

그는 기체를 몰고 빛이 나는 장소로 이동한 뒤, 다리를 다시 내렸다. 그는 수직이착륙 제트 엔진을 바로 아래로 분출한 뒤, 눈이 제대로 녹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보는 건 쉽지 않았고, 파묻힌 바이킹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에릭은 동료가 나타날 때까지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걸 녹이고 싶진 않았다. 먼저, 연료도 시간도 모자랐다. 또한 엔진에서 분출되는 열이 동료들을 녹이고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바이킹의 장갑이 어느 정도 열을 차단해 준다고는 해도, 지속적인 열을 견딜 수는 없었다.

"2 미터 정도만 뒤로 오면, 아마 될 것 같아." 올라프가 말했다.

에릭은 올라프의 헤드라이트가 직각으로 위를 비추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눈더미 표면에서 약간 벗어나 엔진을 가동했다. 엔진이 분사되고 그 힘으로 기체가 떠오르자, 올라프의 바이킹 윗부분이 보였고 이 거구의 사나이는 환호성을 질렀다.

에릭은 옆으로 신속하게 이동했고, 잠시 후에 올라프의 기체가 얼어붙은 무덤을 깨고 올라와 그의 옆 상공을 맴돌았다.

"나머지는요? " 에릭이 말했다. "어디에들 계세요?"

"당장 여길 떠나!" 바르그가 말했다. "지금쯤이면 뮤탈리스크가 도착할 거야."

에릭은 위를 올려다 봤다.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못 봤지만, 바르그의 말이 맞았다. 저 위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저그 비행체가 에릭을 향해 급강하하고 있었다. 저그가 언제 그를 발견했는지, 에릭이 얼음을 뚫고

빠져 나왔을 때인지, 아니면 수직이착륙 엔진으로 올라프를 구출했을 때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아직 시간이 있어."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건진 알 수 없었지만, 에릭은 그냥 그렇게 포기할 순 없었다.

"신호를 주세요. 아무 거라도요. 저희가 가서 구출해 드릴게요."

"난 거꾸로 처박혔어." 바르그가 말했다. "헤드라이트를 켜 봐야 별 소용없을 거야." 그가 잠시 망설였다. "뭔가 보이나?"

에릭은 얼음과 눈 벌판을 살펴봤다. 뭔가 번쩍이는 걸 보았지만, 가까이 움직이니 그냥 햇빛이 반사된 것이었다. 좀 더 어두워지면 바르그의 바이킹에서 나오는 불빛을 볼 수 있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해가 지길 기다릴 순 없는 노릇이었다.

"개틀링 포는요?" 에릭이 제안했다. 무작정 포를 쏘면 소령이 위험해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다.

"완전히 얼어붙었어."

"여기도 마찬가지야." 밸로그가 말했다. "그래도 난 제트 엔진이 작동하기는 해. 잠깐만."

"이런, 젠장!" 바르그가 말했다. "놈들 소리가 들려! 지금 내 장갑을 갉아 먹고 있어!"

"어디 계세요? 뭐라도 보여 주세요. 아무 거라도!" 에릭이 말했다.

"어서 떠나! 난 죽은 목숨이지만, 이 놈들을 저승에 함께 데려가겠어!"

"잠깐만요! 5 초만 더 기다리십시오!" 밸로그가 말했다.

"아냐, 난 아무래도... 윽! 놈들이 조종석으로 들어오고 있어."

에릭은 아래쪽에 있는 눈 더미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눈사태가 지나간 뒤라 어떤 특징도 찾을 수 없었다. 그와 올라프가 만든 구멍 말고는, 얼음들 사이에 차이점을 알 수가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저 밑에서 소령이 죽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통신 장치에서는 총 소리와 함께 바르그의 분노와 절망의 외침이 들려 왔다. 저그를 최대한 많이 죽이겠다고 다짐한 소령은 생명체들을 향해 하나씩 하나씩 총을 발사했다. 에릭은 소령이 자기 자신에게 쓸 총알 하나 남기지 않으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에릭은 소령을 찾아 구출할 때까지 눈이란 눈은 모조리 녹여 버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와 올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공중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었다.

고개를 들어 보니, 뮤탈리스크 한 마리가 바로 위에 있었다. 박쥐 날개가 달린 벌건 눈의 거대 생명체가 커다란 발톱을 세우고 날카롭고 탐욕스러운 이빨을 벌린 채 그에게 달려들고 있었다.

올라프는 이미 자신의 바이킹을 전투기 모드로 바꾼 상태였다. 뮤탈리스크가 자신에게 접근하자, 제트 엔진을 가동해 자리를 피했다.

에릭도 똑같이 하고 싶었지만, 그가 보기에 제시간에 변환을 마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대신 그는 전력을 다해 뒤로 물러섰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그 벌레가 지상까지의 거리를 잘못 계산하여, 경로를 미처 수정하지 못하고 땅에 부딪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뮤탈리스크는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바꾸었고, 채찍 같은 꼬리 끝 부분이 눈 더미 위에 걸렸다. 하지만 거의 바닥에 충돌할 뻔했기에 꼬리를 단단하게 말아 얼음에 부분 착륙하는 충격을 완화해야만 했다.

뮤탈리스크는 굽은 등으로 얼음 위를 통통 튀며, 날개를 거칠게 퍼덕였다. 그때 뮤탈리스크 아래쪽 땅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로 뮤탈리스크는 산산조각 났고 에릭의 바이킹은 뒤로 밀려났다.

바이킹의 다리를 겨우 다시 접어 넣은 에릭은 연기가 나는 구멍 속을 보고 싶었으나, 그렇게 했다간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살아남을 기회를 다시 한 번 얻었는데, 그걸 그냥 낭비할 순 없었다.

그는 바이킹을 공중으로 띄우는 계기판 단추를 누른 뒤, 조종석에 앉아 곧 이어질 엄청난 요동에 대비했다. 위를 보니 저그 한 무리가 진형을 넓게 펼쳐 다가 오고 있었다.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그물 같은 진형에 포위될 판이었다.

바이킹은 앞으로 힘차게 나아갔다. 그가 생계를 위해 몰던 수송기가 굼뜬 짐승이었다면, 바이킹은 밀림의 포식자였다. 빠르고, 유연하고, 그리고 제어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바이킹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걸 느꼈다. 하지만 기체를 쥐고 있는 손을 한순간이라도 놓으면 후회할 시간도 없이 그걸로 끝이었다.

올라프가 뮤탈리스크 몇 마리를 유인했으나, 그만큼의 뮤탈리스크가 다시 에릭의 기체 주위로 모여들었다. 그의 HUD 에 나타난 뮤탈리스크 두 마리 위로 조준선이 뜨자,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방아쇠를 당겨 한 쌍의 랜저 유도탄을 발사했다.

유도탄은 바이킹보다 조금 더 빠른 수준이었기 때문에, 에릭은 이러다가 바이킹과 유도탄이 동시에 뮤탈리스크와 부딪히지 않을까 두려웠다. 유도탄 한 쌍은 각각의 뮤탈리스크에 명중해 폭발했고, 파편과 저그 살점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에릭이 폭발 지점을 통과하면서, 잔해가 어지럽게 기체의 유리창에 튀었고 산성 액체는 유리 표면에 희미한 흔적을 남겼다.

에릭은 고개를 젖히고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다.

"밸로그?" 올라프가 무선으로 말했다. 에릭은 대군주 구역 너머에서 올라프의 바이킹이 선회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바르그 덕분에 내 주위의 얼음 사이에 공간이 좀 생겼어." 파묻힌 밸로그가 말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줘."

에릭은 뒤돌아 균열이 생긴 얼음을 살펴봤다. 바르그의 바이킹이 있던 구멍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얼음 위로 또 다른 바이킹의 윗부분이 튀어나온 게 보였다. 그 주위로 다수의 뮤탈리스크가 모이는 것도 보였다. 폭발 때문에 놈들이 약간 겁을 먹긴 했어도, 놈들은 빠른 속도로 그 공포를 극복하고 있었다.

"시간 다 됐어요." 에릭이 눈 속에 갇힌 밸로그의 바이킹 쪽으로 기수를 돌리며 말했다.

"놈들이 너무 많아." 올라프가 말했다. 올라프의 바이킹이 방향을 틀었다. "놈들 모두를 상대할 순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에릭이 말했다. 그는 공중전에서 어떻게 조종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오늘 들어 처음으로 그 자신감이 솟아났다. 터져 나오는 엔도르핀이 예전 공중전에서 느꼈던 것만큼이나 짜릿했다.

"바르그가 저그 전체를 상대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뮤탈리스크를 상대하면 돼요."

"맞아!" 올라프가 말했다. "놈들을 모두 상대할 필요가 없지. 밸로그가 탈출할 때까지만 놈들의 시선을 끌면 되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에릭은 뮤탈리스크 무리의 오른쪽으로 향했다. 그는 이동하면서 유도탄을 하나씩 하나씩 발사했다. 무엇에 맞느냐는 상관없었다. 아무것에나 맞기만 하면 됐다. 이렇게 목표물이 풍부한 곳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처음 쏜 유도탄 몇 발이 너무 가까이 붙어 날던 뮤탈리스크 무리를 날려 버린 순간, 또 다른 랜저 유도탄 몇 발이 그의 오른쪽 어깨 너머로 날아갔다. 그들은 자신만은 목표물을 찾아 혼란을 가중시켰다.

"냄새가 나!" 밸로그가 말했다. "저그. 놈들이 장갑을 갉아 먹고 있어. 나한테 오고 있다고!"

"조금만 참아요!" 에릭은 어깨 뒤로 자신의 바이킹에 따라붙은 올라프를 힐끗 보았다. 그 광경을 본 에릭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밸로그에게 다가가던 대규모 뮤탈리스크 부대가 공격 경로를 바꿔 에릭과 올라프의 뒤를 대신 쫓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계획은 적중했다.

녹색으로 번뜩이는 쐐기 벌레들이 요란하게 공중을 갈랐다. 그중 몇몇은 에릭의 바이킹에 근접했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목표물에 맞지 않았다. 바이킹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에릭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다. 적어도 밸로그가 탈출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좀 벌었어요, 밸로그!" 에릭은 무선 장치에 대고 말했다. "서둘러요!"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 놈들이 기체를 아작 내고 있다고!"

"한방 날려요!" 에릭이 말했다. "서둘러요!"

잠시 동안 무선 장치가 잠잠했다. 에릭은 바퀴가 밸로그의 안테나를 부순 게 아닐까 두려웠다. 만약 그렇다면 놈들이 밸로그를 산산이 찢고, 밸로그가 목이 터져라 외쳐도 에릭과 올라프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게 오히려 잘된 거라 생각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때 밸로그의 기체를 둘러싼 얼음이 움직였다. 세 번째 바이킹이 차가운 상공에 있는 에릭과 올라프 무리에 합류했다. 밸로그가 승리의 괴성을 질렀다.

"난 괜찮아!" 벌레가 많은 공중 구역을 정리하면서 말했다. "여길 벗어나자고!"

뮤탈리스크는 날렵한 생명체였고, 빠른 속도로 바이킹들을 둘러쌌다. 하지만 순수 화력으로 봤을 때 저그는 테란 기체를 상대할 수 없었다. 에릭과 올라프는 뮤탈리스크의 공격을 피해 놈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곧, 하늘에는 바이킹 조종사들만이 날고 있었다.

저그로부터 벗어나자 그들은 밸로그의 이동 경로를 교차하는 넓은 아치 형태로 날기 시작했다. 곧 편대 비행이 시작되었고, 에릭이 선두에 서고, 올라프와 밸로그가 양 옆을 맡았다.

에릭은 후방 카메라를 통해 폐허가 된 산등성이를 보았다. 눈사태로 아래 부분이 무너졌고, 바르그의 바이킹이 폭발한 곳에선 아직도 연기와 증기가 넓게 올라오고 있었다. 에릭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다.

"저 눈사태가 효과가 있을까?" 밸로그가 말했다.

"있길 바라야지." 올라프가 말했다. "한 번 더 저런 일을 겪으면 아마 살아남기 힘들 거야."

"제 기체만 멀쩡하네요." 에릭이 말했다. "돌아가서 놈들에게 지옥의 맛을 보여 줄까요?"

"그만 둬, 신참." 올라프가 말했다. "넌 우리 생명을 구했어. 네가 돌아가면 나도 함께 간다."

"오늘 잃은 바이킹만으로도 충분해." 밸로그가 말했다. "집으로 가자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주점에 가면 분명히 술이 남아 있을 거야." 올라프가 말했다. "최후의 날까지 공짜로 마시는 거지."

"그렇군요." 에릭이 엄숙하게 말했다. 운이 좋으면 에릭과 다른 바이킹들이 기지로 돌아갈 때쯤, 카이리와 시프는 이미 안전하게 대피했을 것이고, 마지막 수송선이 떠나기 전에 시간이 좀 날지도 모른다. "가서 죽은 친구들을 위해 술잔을 들고, 그들의 무용담을 이야기합시다."